

# 국산차나...수입차나...SUV 신차 '신년 대전'

### 현대차 싼타페 완전변경 모델 기아 EV9·쌍용차 U100 벤츠 EQS SUV 내년초 출시 마세라티 '그레칼레' 활약 기대



SUV 차량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내 자동차업체가 출시할 SUV 신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아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전용전기차 모델 EV9 콘셉트(왼쪽)와 마세라티가 브랜드 역사상 두 번째 SUV 모델로 출시할 그레칼레의 트로페오 모델.



SUV 차량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내 자동차업체가 출시할 SUV 신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아가 내년 출시할 예정인 전용전기차 모델 EV9 콘셉트(왼쪽)와 마세라티가 브랜드 역사상 두 번째 SUV 모델로 출시할 그레칼레의 트로페오 모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들이 큰 인기를 끌며 그야말로 'SUV 전성시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내년 국내 자동차업체가 출시할 SUV 신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로 출고 지연이 빚어진 데다, 금리가 치솟아 할부금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온갖 악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담금질'하고 있는 '신부기'들이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나갈 것인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내년 소형 SUV 코나와 중형 SUV 싼타페의 완전변경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싼타페가 어떤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다. 싼타페의 완전변경 모델은 5년 만에 5세대로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디자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를 비롯해 유튜브 등에서는 싼타페의 예상도를 선보이면서 기존 모델과 달리 '각진' 형태의 디자인을 예상하기도 했다. 또 4세대에 하이브리드(HEV) 모델이 추가돼 판매량 증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5세대 싼타페에도 HEV가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세대가 되는 신형 코나는 2017년 1세대 출시 이

후 6년 만에 '전장'에 나서는 풀체인지 모델이다. 파워트레인(엔진·동력)에는 전기차(EV)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EV6에 이은 또 다른 전용전기차 모델 EV9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라는 전장에서 우위를 점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전용전기차 모델 EV9을 내년 4월께 선보일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SUV 모델인 EV9은 준중형 SUV EV6에 이어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구성하는 두 번째 모델이다. 앞서 기아는 EV9이 1회 충전으로 최장 482km를 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G그룹에 인수돼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가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중형 전기 SUV 'U100'을 내년 중 출시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가 야심차게 선보여 인기를 끌며 판매실적을 끌어올린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전동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토레스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U100이 출시될 경우 토레스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공장에 9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노릴 '강력한 무기' 개발에 나선 한국GM도 시험생산 중인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모델을 내년 상반기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수입차 브랜드도 한국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SUV 신차를 잇달아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하

고 있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구조)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럭셔리 SUV 모델 더 뉴 EQS SUV를 내년 초 출시한다.

앞서 출시된 고급 전기 세단 더 뉴 EQS와 동일한 3210mm의 긴 휠베이스(축간거리)를 자랑하는 등 넓은 실내공간을 장점으로, 유럽 기준으로 1회 충전에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럭셔리 스포츠 카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로드스터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이탈리안 하이퍼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 역시 지난 달 새로운 럭셔리 SUV 모델 '그레칼레'(Grecale)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르반데에 이어 마세라티 브랜드 역사상 두 번째 SUV 모델이다.

그레칼레는 '지중해의 강력한 북동풍'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몰아붙이는 마세라티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최고속도 285km/h, 제로백 3.8초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마세라티 SUV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밖에 BMW코리아는 고성능 브랜드 M의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뉴 XM과 중형 왜건 M3 투어링, 준중형 SUV 전기차 iX1을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프리미엄 SUV 더 뉴 아우디 SQ7 등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車수출액 역대 최고...연 500억달러 돌파할 듯

### IRA 등 약재에도 친환경차 선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녹지 않은 대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친환경차 수출액도 최고기록을 세웠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월간 자동차 수출은 21만9489대로 지난해 동월보다 25% 늘었다.

금액으로는 31% 증가한 54억달러로, 지난 7월(51억4000만달러) 처음으로 5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운 역대 최고 기록을 넘 달만에 경신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은 모두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다. 1~11월 누적 수출액은 487억달러로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뛰어넘었다.

올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완성차 5개사 모두 작년보다 수출 물량이 늘었고,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주요 시장 수출액은 미국(51%), EU(6.3%), 중남미(22.8%) 등 대부분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14.8% 늘어난 5만42대, 금액은 20.3% 증가한 14억9000만달러로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2만2341대) 수출량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한 비중은 22.8%였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액 역시 역대 최고였다. 전기·수소차 수출액이 처음으로 8억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 7월(14억7000만달러)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25.4% 증가한 37만 9797대로 올해 월간 최대였다. 전체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현대차·기아가 연중 최대 생산 실적을 기록한 영향이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8.4% 증가한 15만5942대였다.

이로써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3개 지표가 4개월 연속 모두 증가했다.

국산차 내수는 2.8% 증가한 1만2만6730대, 수입차는 41.9% 늘어난 2만9212대로,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친환경차 내수도 10개월 연속 늘면서 역대 최고치인 4만2604대 팔렸다.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작년보다 15.3% 늘어난 2만4892대로 성장세를 견인했고, 전기차는 45.3% 증가한 1만5403대 판매됐다.

다만 산업부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1~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2.9%에 그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중소기업에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소기업협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부품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필뉴스

## 현대차그룹 6개사 세계 최고 ESG 성과

### 'DJSI 평가' 글로벌 최고 등급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글로벌 등 현대차그룹 6개사가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평가에서 '월드(World) 지수'에 편입되며 세계 최고 수준의 ESG 성과를 인정받았다.

1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DJSI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S&P 글로벌 사위 SA'가 매년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다.

현대차그룹 6개사가 획득한 'DJSI 월드'는 평가 대상인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상위 10%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기아는 올해 처음으로 'DJSI 월드'에 편입됐으며 현대건설은 13년 연속, 현대제철은 5년 연속,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벌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포함됐다.

각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Automobile)에서, 현대제철은 철강 산업(Steel)에서 글로벌 전체 1위로 평가받았으며,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Construction) 분야에서 유일하게 13년 연속 'DJSI 월드'에 포함되며 지

속가능경영을 비롯한 기업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계열사별로 현대자동차는 전략적 인력계획 수립 및 탄소배출과 용수사용 저감, 기아는 환경성과 개선 및 인적자원 관리, 현대모비스는 탄소중립 이행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도화, 현대제철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구축, 현대건설은 탄소중립 선언 및 환경정책 제정, 현대글로벌은 고객관계 관리 및 기업 사회공헌 전략 등을 전년 대비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6개사는 ▲탄소배출 저감 ▲폐기물 재활용·수자원 관리 ▲기업 사회공헌 전략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각 산업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는 각 계열사별로 추진한 ▲ESG 중점 전략 과제 선정 및 추진 ▲탄소배출·폐기물·용수 등 주요 환경성과 관리체계 강화 ▲UN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 연계 사회공헌 활동 진행 및 성과관리(KPI) 강화 등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ESG 경영 수준 향상 및 내재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국내 판매

이제 국내에서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전기트럭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사진)의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으로 스위스, 독일 등 세계 주요 시장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잇따라 공급하며 친환경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2020년 10월부터 스위스에서 운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누적 주행거리 500만km를 넘는 세계 최초로 유일한 양산형 대형 수소전기트럭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국토부와 수소전기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및 영남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현대차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도로에서의 적합성 검증에 마치고 당초 2023년으로 계획했던 국내 판매 일정을 앞당겨 이달부터 고객들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친환경 물류 마일을 선도할 수소전기트럭의 강점은 연료전지 시스템 무게가 전기트럭의 배터리보다 가벼워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안전하게 100%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소전기트럭이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상용차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350kW 고효율 모터와 180kW 연료 전지 스택(90kW 연료 전지 스택 2기, 스택컴플리트 출력 기준), 72kWh 고전압 배터리가 적용됐다. 한 번 수소를 충전하면 약 570km를 주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H430 엔진을 탑재한 동급의 엑시언트 디젤보다 우수한 최대 476마력의 출력과 최대 토크 2237Nm를 확보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적용뿐만 아니라 차량 주요 부위 최적화로 실내 소음과 진동을 낮춰 정숙한 주행환경도 갖췄으며, '충돌 안전 시스템'과 '다운 힐 크루즈', '디스크 브레이크' 등을 적용해 안전성도 높였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4X2/6x4 특장용 샤시캡과 6X4 윈 바디를 운영한다. 판매가격은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 및 지자체 보조금 2억원을 반영했을 때 기준 1억6000만~2억160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벤츠 겨울철 서비스 캠페인

### 내년 1월말까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내년 1월31일까지 겨울철 고객들의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2022 겨울 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에서 공식 판매된 메르세데스-벤츠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제동장치, 냉각수, 배터리 등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동절기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비해, 배터리, 부동액, 와이퍼 블레이드, 브레이크액 등 주요 겨울철 부품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추운 겨울철 날씨 및 환경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전 필요한 부품 및 소모품을 점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매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선물 시즌을 맞아 메르세데스-벤츠 액세서리&캠백스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목도리, 지갑, 향수, 차량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밖에 캠페인 기간 동안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사은품도 증정된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정기 점검 및 소모품 교체 시간을 대폭 단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76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 중 52개 서비스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금호타이어는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광산구와 곡성군 입면사무소에 김장김치 총 120박스를 후원했다. 김치는 각 지역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가정으로 전달됐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렵고 소외

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캠페인이다.

김희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주변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